

## 중국 동북부 제민족의 주거형태 및 주생활 특성

### Housing and Living Pattern of the Five Tribes in Northeastern China

신수영\*  
Shin, Soo-Young

윤정숙\*\*  
Yoon, Chung-Sook

#### Abstract

In the North-eastern districts of China, Northern races inherited and developed their own cultural traditions. The housing of northeastern China has been changed under the influence of environment. Some tribes' housings has been developed, keeping their own peculiar style, while others have divested of their ethnic flavor. To understand these aspects of development, this study focused on the housings in Heilongjiang and Nei Monggol. As for the procedure, this study referred to the literature and carried out a field trip at the same time. The housing of northeastern China has undergone the process to fix their residence after the life of migration in common. In this process, northeastern hosing has changed variously and can be grouped into the several types by shape and material. From the point of view about living pattern, some important living features are extracted by the types.

Keywords : Northeastern China, Mongol, Daor, Oroqen, Ewenki, Hezhen, Kang

주요어 : 중국 동북, 몽고족, 다위얼족, 어룬춘족, 어원커족, 허저족, 캉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의 주거건축은 중국의 다양한 지리적 특징, 기후, 자연조건, 지역 재료를 바탕으로 여러 종류의 주거형식을 형성해 왔다. 또한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민족국가라는 인문적 배경 때문에 각 민족의 생활방식과 경제조건에 따라 독자적인 건축양식을 유지하기도 하고, 타민족의 것과 융화되기도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주거양식의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은 동북평원의 평야지대와 요녕성의 남부연해안, 대흥안령 산맥의 산악지대, 내몽고자치구에 걸쳐있는 초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

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복합적인 생산방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 연구는 동북 지역 민족들의 고유한 주거 원형을 비교 고찰하는 동시에, 민족간 상호영향관계에 의한 주거 변형의 양상까지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동북지역의 거주문화를 파악함으로써 동북지역 문화의 이해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구체화하면



그림 1. 중국 동북 지역

\*정회원,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석사  
\*\*정회원, 연세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학술박사  
본 연구는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KRF-2002-072-DS2501)

첫 번째로는 주거의 건축적 특성을 고찰하여 통시적 관점에서의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각 민족별 주거 유형의 변천과 발전의 규칙성을 탐구하고, 두 번째로는 주생활 분석을 통해, 주거 형태의 유형별로 공간 구조와 생활행위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흑룡강성과 내몽고자치구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제민족 전통주거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 동북지역을 세거지(世居地)로 하는 민족은 한족(漢族)을 포함하여 11개 민족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북지역의 11개 민족 중 동북지역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정착민족으로 현지 조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몽고족, 다위얼족, 어원커족, 허저족, 어룬춘족의 5개 민족을 조사 대상 민족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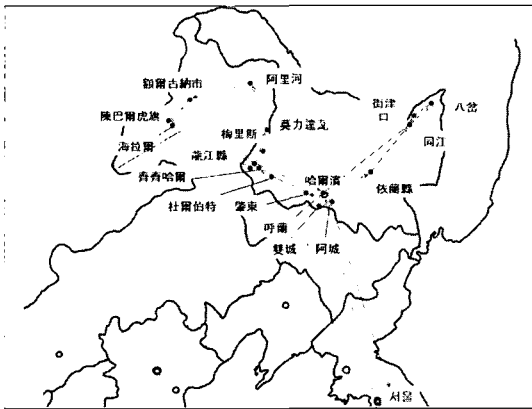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대상 지역 및 경로

3. 연구의 방법

연구는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현지조사<sup>1)</sup>는 현존하는 민가의 실측조사와 면담을 통한 주생활조사와 함께 전통민가의 원형 추적을 위한 박물관 참관 및 전문가 면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조사는 동북지역의 자연, 인문환경과 동

북지역 소수민족의 인문, 사회적 배경에 대한 문헌 고찰과 함께, 현존하지 않는 전통 민가를 고증된 문헌자료를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의 현지조사에서는 건축물의 외부 실측과, 주거공간 내의 가구 및 장식품의 배치상태를 알기 위한 평면채취를 하고, 이와 더불어 심층면접과 관찰을 병행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동북지역의 지리적 특징

흑룡강성은 지리적으로 동부는 러시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서부는 내몽고자치구, 남부는 길림성과 접하고 있다. 면적은 중국 국토면적의 1/20을 차지한다. 기후는 흑룡강성이 중국 최북단에 위치하여 중국 내에서 기온이 가장 낮은 지역에 속하며 온한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를 나타낸다. 겨울이 길고 추우며, 여름은 짧다. 지세는 서북쪽을 가르고 있는 대흥안령 산맥 때문에 서북쪽이 높고 나머지 지역은 낮다. 중부와 동남부 강 유역에는 대규모의 평원이 펼쳐져 있다. 농업은 벼농사를 위주로, 밀과, 콩, 옥수수 등을 재배한다.

내몽고자치구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성립된 민족자치구로, 중국에서 3번째로 큰 자치구이다. 동, 남, 서 3면은 흑룡강, 길림, 요녕, 허북, 산서, 섬서, 영하, 감숙 등 8성과 인접하고, 북은 러시아와 몽고국과 접하고 있다. 지형은 광활하고 평탄하여 대흥안령 서쪽은 주로 고원이며 동부 초원은 중국에서 가장 비옥한 대스텝이다. 이외에 많은 사막과 사지(砂地)가 있다. 내몽고자치구 기후의 일반적 특징은, 온대 대륙 반습윤 기후로부터 반건조로의 중간 기후를 갖는다.

2. 동북지역 제민족 개황

1) 허저족(赫哲族)

허저족<sup>2)</sup>은 중국 내에서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으로 1990년 조사시 모두 4,245명으로 흑룡강성의 흑룡강, 송화강, 우수리강 유역에 살고 있다. 허저족

1) 총 2차례에 걸친 조사 중에 2003년 4월 19일부터 30일까지는 1차 사전 준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본 답사로 2003년 7월 6일부터 2003년 7월 24일까지 세부 조사를 실시하였다.

2) 허저족은 퉁구스의 남쪽 분파로서, 퉁구스는 아고특인이 돼지고기를 먹은 인접 부족을 일러 퉁구스라고 한 것에서 유래한다. 고서에는 동이의 한 종류라고 기록된다. 백제와 신라는 고아시아족에 속하고 민족은 퉁구스족이다.

은 오랜 기간의 형성과정 속에서 퉁구스·만어 계통의 민족성분, 고아시아인의 성분, 몽고족과 한족의 성분 등을 부분적으로 흡수, 융합하여 발전하였으며 청대 초기에 오늘의 허저족을 이루었다.

전통적으로 강 유역에 거주하는 허저족은 고대로부터 어렵 경제를 위주로 했다.

2) 다위얼족(達斡爾族)

다위얼족은 알타이어계 몽고어족에 속하며 그 기원은 거란(契丹)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인구는 약 12만 명이고 흑룡강성에 4만 2천 명이 살고 있다. 다위얼족은 비를 기원하고, 제사를 지내고, 태양을 숭배하는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경제구조는 농업위주로서 목축업과 수렵, 어로를 겸한다.

3) 어룬춘족(鄂倫春族)

어룬춘족은 흑룡강 유역 대흥안령 일대에 거주하는 수렵 민족이다. 전국의 어룬춘족은 1990년 조사 통계에 의하면 6,965명이고 흑룡강성에 3,588명이 살고 있으며 수렵과 목축을 위주로 살고 있다.

4) 어원커족(鄂溫克族)

어원커족은 흑룡강 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의 하나로 1990년의 통계에 의하면 26,315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분포지역은 내몽고자치구 후룬바이얼맹(呼倫貝爾盟)과 흑룡강성의 늘하(訥河), 넌강(嫩江), 치치하얼(齊齊哈爾) 등지이다. 수렵에만 종사했으나 일부 지역의 어원커족은 몽고족의 영향으로 후에 목축을 위주로 하고 수렵을 겸하는 민족으로 바뀌었다.

5) 몽고족(蒙古族)

몽고족은 1990년 통계에 의하면 내몽고자치구에 337만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초기 몽고족은 반목반렵(半牧半獵) 생활을 하였으나, 9세기 중엽 이래 점차 남하하여 전형적인 기마유목민(騎馬遊牧民)이 되며 부족국가를 세웠다. 그 뒤 13세기 초 칭기즈 칸이 몽고제국을 건설하였으나, 원나라 붕괴 후 분열하였다. 이후 1911년 신해혁명으로 몽고는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1921년 몽고인민공화국(외몽고)을 세웠고 중국 본토에 남아 있는 몽고족

은 이와 구분하기 위해 내몽고라 한다. 현재 몽고족은 전통적인 관습은 남아 있으나, 과거의 유목생활에서 벗어나 농목업을 겸하는 등 정착화되고 있다.

III. 동북 제민족의 주거 형태와 유형 분류

1. 동북 제민족의 주거 형태

1) 허저족(赫哲族)

허저족의 주거집락지는 흑룡강, 송화강, 우수리강의 삼강(三江)유역을 중심으로 강을 따라 강안에 배치되어 있으며, 전통 주거는 그들의 주생산방식인 어렵(漁獵)생산에 편리하도록 고안되었다.

주거의 종류는 이동성에 따라 임시주거와 고정주거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임시주거는 거주보다는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주거로 찰라앙커[撮羅昂庫], 윈터허[溫特舍], 쿠언부루앙커[闊恩布如昂庫], 보수앙커[博蘇昂庫] 등이 있으며, 어로(漁撈)와 수렵(狩獵)생산의 이동활동에 근거하여 수시로 옮겨짓는 임시거처이다. 고정주거는 임시주거보다 거주성이 높은

표 1. 중국 동북부 지방 제민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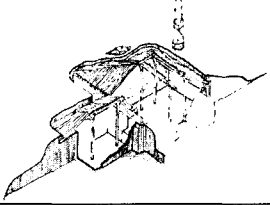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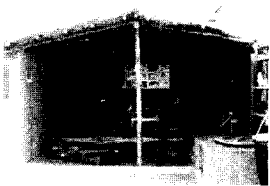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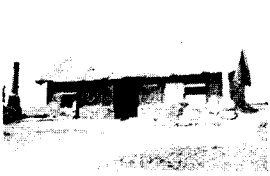
민족명	인구 (1990년)	생업 형태	신앙
허저족 赫哲族	4천2백명	어렵(어업)위주, 농업은 보조	샤머니즘
다위얼족 達斡爾族	12만명	농업위주, 목축과 어업을 겸함	샤머니즘
어룬춘족 鄂倫春族	7천명	수렵 위주, 어렵	샤머니즘
어원커족 鄂溫克族	2만6천명	목축업, 농업, 반농반수렵, 수렵(馴鹿)	샤머니즘 라마교
몽고족 蒙古族	337만명	유목	샤머니즘라마교

표 2. 중국 동북지역 제민족의 계통 분류

계통	민족	분포 지역	언어	관련 소수민족
동호계통	東胡·烏桓·鮮卑·柔然·靺鞨·室韋·契丹·奚·蒙古	華北 東北	알타이어계 몽고어족	몽고족, 다위얼족
숙신계통	肅慎·挹婁·勿吉·靺鞨·女眞·滿族	東北	알타이어계 만-퉁구스어족	만주족, 시버족, 허저족, 어원커족, 어룬춘족
맥계통	濊貊·沃沮·夫餘·高句麗	東北	알타이어계 조선어족	조선족

3) 일찍이 색륄(索倫), 퉁구스[通古斯], 야쿠트[雅庫特]라고도 불렸으며 1957년에 어원커족이라는 통일된 명칭으로 정착되었다.

표 3. 허저족 주거 특성

종 류	구조 및 형태	재 료	내부 공간 구성	이미지
찰라양커 <sup>4)</sup> [撮羅昂庫]	원추형 골조	길이 3m, 굵기 6~9cm의 나뭇가지 10~20개를 원추형으로 세우고 가는 나뭇가지를 횡으로 둘러 고정시킴	원형의 평면에 남쪽에 입구를 내고 북, 동, 서 삼면에 나무 침상을 놓음	
	덮개	환경에 따라 풀, 자작나무껍질, 천 등 덮개의 재료를 달리함		
후루뿌 [胡如布]	지하 70~80cm 깊이로 방형의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골조를 세우고 용마루와 서까래를 올림	지붕과 외벽 마감은 풀을 엮어서 만들며, 그 위에 흙을 덧바름	방형 평면 남쪽에 문을 내고 한쪽 벽면에 칸(항) <sup>5)</sup> 을 놓고 내부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평면	
쥬어 [卓]	후루뿌가 발전한 형태로 지상주거로서 평지에 벽들을 쌓아 올려 짓고 썰기형의 지붕이 있으며 동, 서벽이 정면이 되는 것이 특징임	흙벽돌로 쌓아 짓고 지붕은 풀로 덮음	문은 남쪽 측벽에 내며 동, 서 양쪽에 칸을 놓고 칸과 인접하여 부뚜막을 설치함	
정방	벽체를 만든 후 그 위에 서까래를 올리고 금속줄로 묶고 흙을 바름. 풀을 올린 후 지붕을 만듦	벽체는 라하(풀로 만든 벽돌)로 쌓아 짓고 지붕은 풀로 덮음	2칸형은 서쪽칸(西屋)이 침실이며 동쪽칸(東屋)이 부엌(外屋)이 됨. 3칸형은 가운데칸이 부엌이고, 동서 양칸이 침실. 침실은 부엌과 면하지 않은 삼면에 칸이 놓임	

주거형태로서 강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지대가 높은 곳에 짓는다. 고정주거에는 후루뿌[胡如布], 시르미양커[希日免克], 쥬어[卓], 정방(正房)<sup>6)</sup>이 있다. 주거특성은 <표 3>과 같다.

2) 다위얼족(達斡爾族)

다위얼족의 주거는 그들이 일찍이 정착하기 전에 허저족의 찰라양커와 구조가 비슷한 주크어차(柱克查)와 우리거(烏日格)에 거주하였다<sup>7)</sup>고 전해지나, 다

위얼족의 민족적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전통주거는 년강(嫩江) 유역으로의 이주 후의 정착 주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다위얼족은 민족 고유의 2칸 내지 3칸의 장방형 주거를 오랫동안 유지해오고 있다. 주거특성은 <표 4>와 같다.

3) 어룬춘족(鄂倫春族)

어룬춘족은 수렵생활을 하므로 환경변화에 따라 여러 곳으로 이동을 한다. 비정상적인 이주와 정주처가 없다는 것은 어룬춘족의 장기간에 걸친 수렵생활 속에서 형성된 두드러진 특징이며 거주습관의 중요한 측면이다. 어룬춘족은 1950년대 정부에 의해 촌락단위의 정착화가 진행되기 전까지 이러한 유랑생활 방식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시에런주(斜仁柱)라는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이동식 주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 후 정부에 의한 촌락 단위의 정착화가 완성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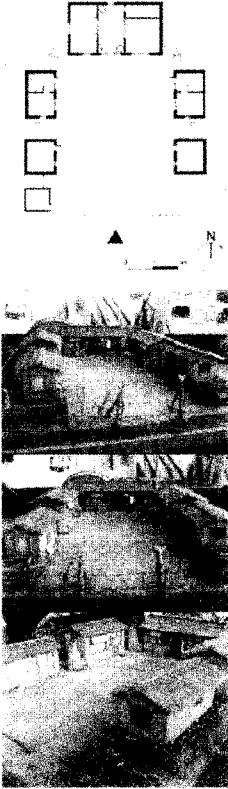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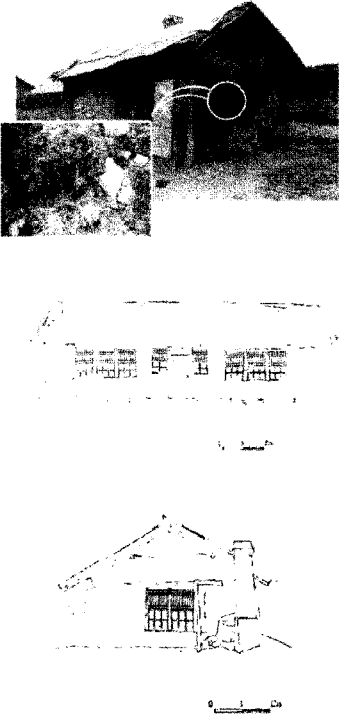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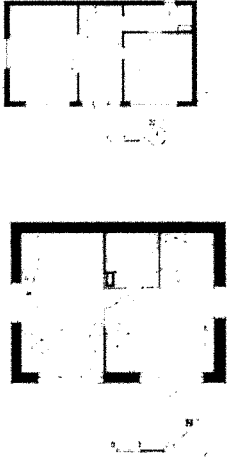
4) 허저족의 이동형 주거는 용도와 재료별로 다양한 명칭이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찰라양커[撮羅昂庫]이다.

5) 칸(炕)이란 실내 한쪽을 바닥에서 90 cm 높이로 만든 우리의 온돌과 같은 바닥난방 시설이다.

6) 정방(正房)은 만족(滿族)이나 한족(漢族)의 주거에서 본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허저족은 2칸 내지 3칸으로 된 초가 지붕의 단층집을 정방이라 일컫는다.

7) 達斡爾資料集 編寫組(1996), 達斡爾資料集 第3卷, 民族出版社, p. 180.

표 4. 다위얼족 주거 형태 특성

	배치 형식	구조 및 형태	재료	내부 공간 구성
거리 출시	한족의 삼합위와 유사한 배치 형식으로 가운데 바이신거리(白新格田)라고 불리는 정방이 남향에 놓이고 이를 중심으로 그 앞으로 상방(廂房)에 해당하는 하시고어리(哈希格田)가 병렬로 놓임	기초가 될 50cm 두께의 흙을 깔고, 두칸 집이라면 6개, 5칸이라면 12개의 기둥을 세운다. 기둥을 물고 그 위에 서까래를 얹는다. 서까래를 얹을 때에는 지붕의 각도가 40~45도를 이루게 함. 서쪽 측벽에 창을 냄 <sup>8)</sup>	“塔頭”(풀을 짧게 잘라 중중히 풀과 흙을 섞어서 물을 넣고 반죽한 후 벽돌크기의 틀에 부어 적어 낸 것). 보투어러(博托勒)로 부르기도 함.	정방은 크게 출입구가 있는 외옥(外屋)과 가족의 주요 생활공간인 칸이 있는 방(西屋과 東屋)으로 구성됨
관련 이미지				

면서 정부에 의해 고안된 주택(흙집)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벽돌집으로 개축되어 현재 어문춘족은 거의 이러한 벽돌집에 거주하고 있다. 주거 특성은 <표 5>와 같다.

4) 몽고족(蒙古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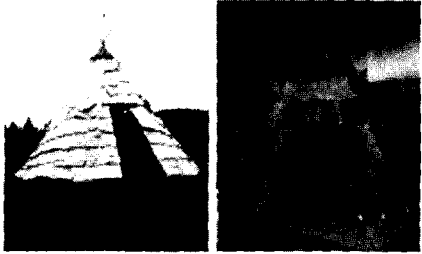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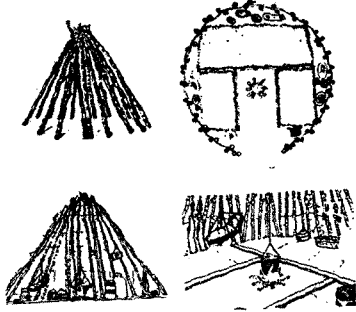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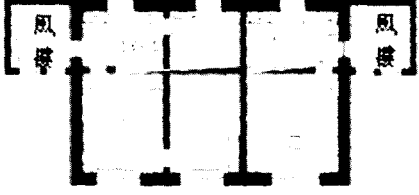
8) 정방의 좌우에 위치하는 건물. 이 서쪽의 큰 창을 “하이마얼(懷瑪爾)”이라고 부르는데, 이유를 현재의 다위얼족들은 채광과 통풍을 증진시킨다.

내몽고자치구에 거주하는 몽고족은 여전히 인 유목생활을 하면서 몽고족의 전통적인 인 몽고빠오에서 살고 있는가 하면 정착된 이후 고정 주거에 거주하며 농경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몽고지역의 몽고빠오, 고정식 빠오(원형 흙집), 9 거로 나눌 수 있다. 주거 특성은 <

5) 어원커족(鄂溫克族)

어원커족은 본래 어문춘족과 거

표 5. 어문촌족 주거 형태 특성

종 류	구조 및 재료	내부 공간 구성
시에런주 [斜仁柱]	“아차[阿叉]” : 2개의 주골조 “투라건[托拉根]” : 6개의 골조 “시에런[斜仁]” : 20개의 보조골조 “으런[額倫]” : 노루가죽덮개 “티커샤” : 자작나무껍질로 만든 덮개	“마루[瑪路]” : 입구에 반하는 정면 “아오루[奧路]” : 마루[瑪路]의 양측
관련 이미지		
벽돌집	붉은 벽돌의 신식집으로, 좌우 대칭의 겹집구조. 내몽고자치구 민가에서 보이는 평로우(風樓)가 양쪽에 있는 2호 연립주택으로 2집이 한 가옥에 출입구를 나뉘고 있는 형태	양쪽에 평로우(風樓)라는 입구 공간을 통해 진입하는데, 이 공간은 바람을 막아주는 전이공간인 동시에, 수장 공간임. 평로우 옆에 부엌이 붙어 있으며 부엌과 병렬로 거실과 침실인 소옥(小屋)이 있음.
관련 이미지		

족이다. 정착 이전에 이러한 수렵용 이동형 주거를 “사시거주[薩喜格柱]”라 한다. 이는 어문촌족의 시에런주와 거의 비슷한 구조와 형태이다.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어원커족의 생산방식은 다른 동북지역의 민족과 같이 여러 변화를 거쳤으며 현재는 이전의 전통적인 수렵생활을 하고 있는 어원커족은 없으며 몽고족의 영향으로 목축을 위주로 살아가고 있다. 목축을 하는 어원커족이 밀집되어 있는 모얼거허수무[莫爾格河素木]의 어원커족들은 목축의 유목생활을 위한 몽고빠오에서 거주하거나 마을의 정착식 주거인 무쿨령(木克楞, 러시아식 귀틀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2. 동북지역 주거 형태 유형 분류

동북 제민족 주거는 민족의 생산방식에 따라 나타

나게 된 형태로서 각 민족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환경적, 역사적 요인에 의해 생산방식의 변화를 겪었다. 특히 동북지역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거주지의 정착화 과정이다. 그에 따라 주거 형태는 소멸되기도, 변화하여 발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민족의 전통 주거 중 일부는 명칭만 다를 뿐 생산방식과 환경의 유사성으로 인해 그 형태와 재료, 공간의 이용방식이 거의 같은 주거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규칙성과 유사성을 고려하여 동북지역 주거를 유형화하면 <표 7>과 같다.

먼저, 동북지역 주거는 생활방식에 따라 크게 이동형주거와 정착형주거로 나눌 수 있다. 이동형주거는 수렵생활에 기반한 원추형주거와 유목생활을 위한 몽고빠오이며, 정착형주거는 정주화과정에서 농경

표 6. 몽고족 및 어원커족의 주거 형태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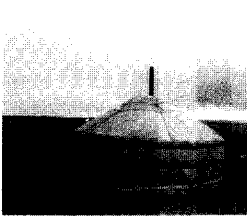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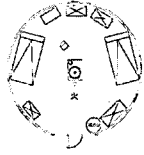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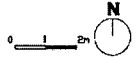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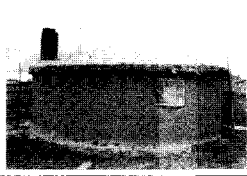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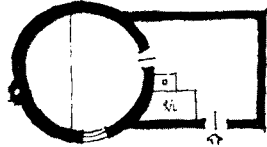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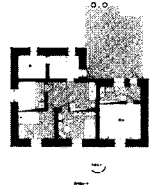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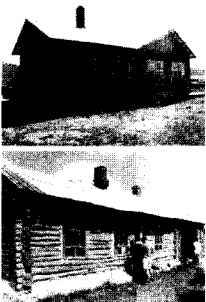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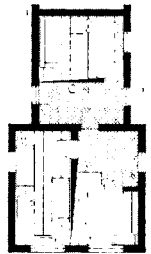

종류	구조 및 재료	내부 공간 구성
몽고싸오 [蒙古包]	<p>“하나”: 버드나무로 짠 몽고싸오의 벽체                      “오니”: 경사진 지붕면에 놓이는 서까래                      “터너”: 몽고싸오의 원형 천창                      “바간”: 터너를 받치는 기둥                      “에스기”: 몽고싸오를 덮어 에워싸는 펠트 재료</p> 	<p>남측에 문을 내며 북쪽 정면은 신을 모시는 자리이고 그 양 측에 침상을 놓으며, 입구 오른쪽은 취사도구를 놓는 자리이며 왼쪽은 마구 등 말에 관련된 물건들을 놓는 자리.중앙에 화로가 놓임</p>  
싸오형 흙집	<p>몽고싸오의 원형을 유지한 채 흙으로 지어진 정착형 주거. 원형평면에 방형평면이 붙은 흙집, 혹은 두 원형평면 사이에 방형평면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흙집 등이 있음.</p> 	<p>내부는 칸과 부뚜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개방형 평면임</p> 
정착형 흙집	<p>벽체를 세우고 흙을 발라 지음. 평로[風樓]나 문로[門樓]라 불리는 방형의 출입공간을 두고 인근의 일자형 흙집이 아닌 겹집 구조</p> 	<p>출입 공간인 풍루와 이어지는 곳은 보통 통로기능을 겸하는 주방이며 주방을 중심으로 실내는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음. 일자칸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반화된 양식은 아님.</p> 
무컬링 [木克楞]	<p>무컬링은 러시아식 나무 귀틀집으로 통나무를 井자형으로 쌓아 올린 집의 형태로 자형과 丁자형이 있음.</p> 	<p>일자형 주거에는 동쪽 칸에 입구가 있었으며, 동쪽 칸은 입구와 창고가 화장으로 분리되어 있다. 입구가 되는 칸은 평로[風樓]로 현관의 기능을 하는 곳이며, 가운데 칸은 부엌, 서쪽 칸이 주실임 丁자형 주거는 평로가 북쪽, 주실이 남측에 배치되며, 평로의 동쪽에 문이 있음.</p>  

표 7. 동북지역 주거형태의 유형 분류

주거형태의 유형		주거 명칭
이동형 주거	원추형 주거	撮羅昂庫, 斜柱, 薩喜格柱
	몽고싸오	蒙古包
고정식 임시주거	반지혈 주거	胡如布
	방형 주거	卓
정착형 주거	원형 흙집	고정식 包
	장방형 흙집	正房, 格日
	벽돌집 주거	벽돌집
	무컬링	木克楞

과 목축을 기반으로 발전한 각 민족의 고정식주거가 된다. 또한 허저족에서 나타났던 반지혈주거인 후루

뿌와 쥬어는 이동형주거와 정착형주거의 그 중간적 성격으로 고정식 임시주거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동북지역의 주거 유형 변화의 과정을 민족별로 모식화한 것이 <그림 3>이다.

#### IV. 동북 제민족의 주생활 특성

##### 1. 주생활과 공간 사용

###### 1) 칸의 형태 및 기능

칸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ㄷ자 모양의 만자칸<sup>10)</sup>과 남북 대면칸(對面炕), 한쪽 벽에만 설치된 일자칸(一字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칸의 형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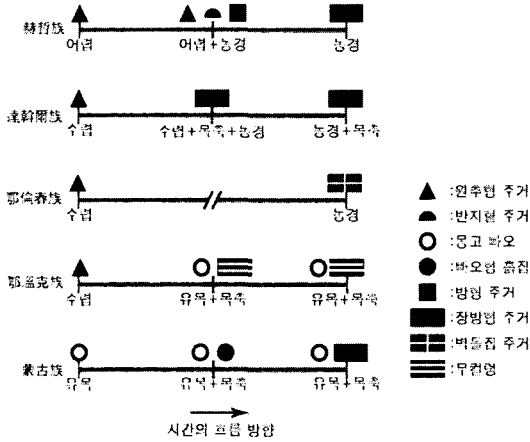


그림 3. 생산방식과 주거형태 모식도

한국의 온돌이 전면 온돌인 것과 비교하여 형태의 다양성을 띠고 있다. 우선 만자강은 동북지역의 장방형 민가 평면에서 나타나는 강(炕)의 형태이다. 만자강에서 서강(서쪽벽에 놓인 강)은 남강과 북강이 취침과 식사 등의 일상생활 행위가 일어나는 곳인 데 반해, 의례적인 장소로서 함부로 앉거나 거주하지 못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남강은 북강에 비해 상석이며 남강 위에서도 부뚜막과 가까운 곳이 연장자의 자리이다. ㄷ자강에서의 형태에 따른 강(炕)의 위계 형성은 남향 배치와 관련한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상석으로 둔 것에 유래된 것이며 한국의 온돌은 방바닥의 온도차로 인해 부뚜막과 가까운 방의 안쪽을 상석으로 한 것과 비교된다. 또한 강(炕)은 실내에서의 공간적 비중이 큰 만큼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취침을 비롯한 식사, 가사, 접대 등의 가족생활에서부터 개인생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생활이 강 위에서 이루어진다.

만자강의 이러한 습속은 문헌에서는 동북지역의 정착주거에서 민족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현지조사 결과 현재까지 만자강의 이러한 관습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민족은 다위얼족이었다.

대면강은 만자강에서 비일상 영역인 서강이 사라진 형태로 장방형 민가 중 일부에서 나타난 형태이

다. 실제로 조사된 민가의 대면강이 있는 곳은 개조 전에 서강이 있었으나 생활상의 이유로 없어진 집들이었다. 서강을 없애는 것은 서강이 갖는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의미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요구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대면강은 만자강에 비해 공간의 위계 의식이 덜하고 생활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강 의존도가 낮다.

일자강은 장방형 민가에서는 2칸집에서 개조로 새로 만든 작은 침실인 소옥(小屋)과 3칸집의 동옥에서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반지형 주거나 방형주거, 원형 흠집에서도 나타난다. 다위얼족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주택의 강(炕)은 대부분 일자강이었으며, 일자강이 놓여있는 이들 민족의 방의 규모는 다위얼족의 만자강이나 대면강이 놓인 방보다 작고 생활의 비중도 적다. 일자강은 만자강이나 대면강이 놓인 주택에서의 생활에 비해 강(炕)의 의존도가 더 낮으며 다양한 생활을 지원해주던 강(炕)의 기능은 축소되어 취침 기능만이 주기능이 된다. 그 외의 원추형 주거나 몽고빠오, 무컬링에는 강(炕)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기거양식

원추형 주거나 몽고 빠오는 침상에 앉아 식사를 하며 그 밖의 대부분의 생활 행위는 바닥에 앉아서 이루어진다. 다른 민족에 비해 강문화가 일찍이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다위얼족, 허저족의 장방형 민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강 위에서 강주어(炕桌); 낮은 탁자)를 놓고 식사를 하며 그 밖에 여러 주생활 행위들이 강 위에서 앉아서 이루어졌다. 또한 주방에서는 아궁이에 불을 때거나 빨래를 할 때, 작은 의자에 앉거나 쭈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한다. 이것은 중국 한족의 입식 생활양식과 확연히 구분되는 동북지역의 특징이며 오히려 한국인의 온돌생활로 인한 좌식 생활양식과 유사한 점이다.

현대식 가구가 전통주택 내에 들어오면서 입식 테이블이나 의자의 사용이 나타나지만 입식보다는 아직 좌식에 가까운 기거양식을 보이고 있었다. 개조가 많아지고 강(炕)의 사용이 적어지는 주거 유형일수록, 침대나 소파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주방에서는 부뚜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져 주방에 앉아서 하는 일은 거의 없다. 특히 어원커족의 러시아 영향을 받은 무컬링 내부의 생활은 다른 주거 유형에서 볼 수 없는

10) 만자강(卍子炕)은 삼면의 놓여진 강과, 굴뚝으로 이어지는 연도의 모양을 따 칭하는 용어로 腕子炕이나 拐彎炕라고도 한다.



서양식이다.

3) 공간의 기능분화

원추형 주거는 내부에 물리적 구조체가 없는 통합된 공간으로 기능에 따른 공간 구획이 없다. 몽고빠오는 물리적 구조체가 없는 통합된 한 공간이지만, 영역에 따른 기능 분화가 원추형 주거에 비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즉 취사공간과 식사공간 취침공간이 정해져 있으며 각 영역의 주체도 엄격하다.

반지혈주거나, 원형 흙집, 방형주거는 내벽은 없지만, 화로가 사라지고 칸이라는 고정식 설비가 도입되면서 이전 주거에 비해 그 기능의 분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칸과 부뚜막의 설치로 취침과 식사를 하는 공간과 취사 공간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장방형 민가는 내벽에 의해 2칸 혹은 3칸으로 구획된 방이 생겨나고, 따라서 부엌이라는 기능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서옥에 설치된 칸에서의 생활 기능은 유동적이고 통합적이어서 기능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추운기후로 인해 모든 일상, 비일상 행위가 칸이 있는 실내 즉 서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장방형 민가의 공간의 통합성은 입식가구를 사용하는 한족의 민가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한족(漢族)민가의 와실과 당의 기능적인 분화와 비교하여 동북지역의 칸 위에서의 생활공간은 오히려 온돌 중심의 우리나라 민가의 안방의 기능과 흡사하다. 동옥은 서옥보다 공간의 분화가 높은데, 이것은 동옥은 칸을 뜯어내고 입식 가구를 들여와 생활하거나 필요에 의해 화장(火牆)<sup>11)</sup>으로 내부를 나누어 소옥을 만드는 공간 분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동북지역의 무컬렁은 각 유형 중 가장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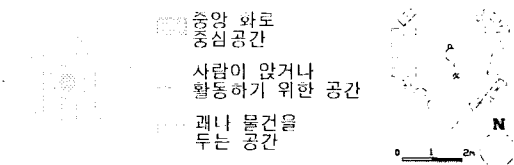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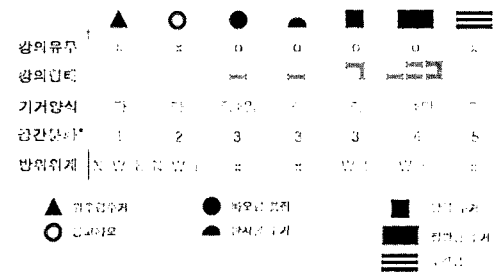
그림 4. 몽고빠오의 공간 기능 분화

분화가 많이 진행된 유형으로서 구조벽에 의해 나누어진 방의 개수가 4개 이상으로 각 공간의 성격이 확실하고, 따라서 공간의 종류도 다양하다. 침대와 소파를 사용하면서, 침실과 거실로 공간이 나누어지고 있으며, 입구에는 평로[風樓]라는 공간이 있어 바람을 완충시키는 기능을 하고, 수장기능도 함께하는 전이공간이 있다.

4) 방위에 따른 위계 질서

원추형 주거나 몽고빠오 내에서의 위계는 북쪽이 가장 높은 자리이며 동서로 나누면 동쪽보다 서쪽을 더 중시했다. 몽고빠오에서는 명백하게 서쪽을 남성 영역, 동쪽을 여성영역으로 하여 생활도구를 분리하여 배치하고 있다. 서쪽을 숭배하는 관습은 동북지역의 소수민족의 공통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정착 주거에서도 한족과 달리 동옥보다 서옥을 더 존귀한 방으로 여기고 서옥의 서강 위에는 조상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을 두거나 서벽에 신위를 모신다. 그러나 蒙古族의 흙집이나 벽돌집, 무컬렁에서는 주택 안에서 특별히 영역을 구분하는 방위개념은 없었다.

이상 생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동북지역 주생활 특성을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즉 각 유형별로 칸의 유무와 형태(만자칸, 대면칸, 일자칸)를 나타내었으며, 기거양식은 각 주거 유형의 좌식과 입식의 행위 빈도에 따라 표시하였으며, 공간의 분화는 물리적인 구조물에 의해 기능이 강제적으로 분화된 형태와 구조물은 없지만 생활상으로 기능이 분화된 형태, 그리고 기능 분화가 거의 없고 공간이 통합되어 사용되는 형태로 순위를 번호 1~5로 표시하여 나타내었다.



- 1. 방이 없음 (방이 없는 공간) : 방이 없는 집, 방이 없는 칸, 1칸 무컬렁
- 2. 방이 있음 (방이 있는 공간) : 방이 있는 집, 방이 있는 칸, 2칸 무컬렁
- 3. 만자칸 (단, 동, 서, 남방에 칸이 있어 기거할 때 칸이 무컬렁 있음)
- 4. 대면칸 (단, 남방에 칸이 있는 무컬렁 있음)
- 5. 일자칸 (단, 남방에 칸이 있는 무컬렁 있음)

그림 5. 동북지역의 주생활 특성

11) 화장(火牆)이라 하는데, 동북지역에서 나타나는 난방방식으로 벽돌로 만든 장방형의 이중벽 사이에 열기를 관통시켜 벽자체를 난방하는 방법이다.

## V. 결 론

동북지역의 주거는 공통적으로 거주지의 정착화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통시적 관점에서 민족별로 나타난 주거들을 살펴보면, 그 형태와 재료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주거 유형의 변천을 거치는 동안 각 민족은 주생활적 측면에서도 생활양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즉 강의 형태 및 기능, 기거양식, 공간의 기능분화, 그리고 방위의 위계질서의 측면에서 유형별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동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로 동북지역 민가의 체계적 분류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1차 목적으로 하였다. 향후, 더 많은 지역의 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의 수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후속 연

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났던 동북지역 주거의 강에 의해 특징지워진 주생활 특성을 우리의 온돌 문화와 관련하여 비교해봄으로써 우리 주거의 원형을 찾는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 참 고 문 헌

1. 莫力達瓦達斡爾族自治旗概況 編寫組(1985), 莫力達瓦達斡爾族自治旗概況, 內蒙古人民出版社.
2. 中國赫哲族. 舒景祥(1999). 中國赫哲族. 黑龍江人民出版社.
3. 達斡爾資料集 編寫組(1996). 達斡爾資料集. 民族出版社.
4. 鄂倫春自治旗概況編寫組(1981). 鄂倫春自治旗概況. 中國少數民族自治地方概況叢書. 內蒙古人民出版社.
5. 김호걸(2003). 중국 고대 북방 제민족의 거주문화.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6. 윤정숙(2000). 중국동남부지역 민가의 주공간 구성과 기능. 한국주거학회, 11(2)
7. 淺川滋男(1993). 東北アジアのツングース系諸民族住居に関する歴史民族學的研究. 住宅總合研究財團研究年報, 23.

(接受: 2004. 3. 11)